

#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산업 지원 탄력

전북도·새만금개발청·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 한국특수가스와 산업용 가스 제조시설 건립 위한 투자협약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20일 한국특수가스(주)와 '산업용 가스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특수가스(주)는 산소, 질소, 아르곤 등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전북 항포항기업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1공구에 ASU플랜트를 세워 이차전지 기업이 필요한 산업용 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총 투자액은 715억원, 신규 고용인원 30명이며,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6년

부터 새만금산단 입주기업에 가스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산업 전반에 걸친 필수 소재로 꼽히는 '산업용 가스 장치산업'은 특히 이차전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한국특수가스(주)의 투자 결정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기업에 산업용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한국특수가스(주)의 신규 투자를 적극 환영하며,

새만금을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관련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차전지 산업의 역동적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차전지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끊이지 않는 새만금은 명실공히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산단 내 입주기업이 지역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도내 항포항기업인 한국특수가스가 새만금 국가산단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며, 군산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국가산단단지지는 친(親)기업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7.9조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하며, 새만금 개발 가속화를 위해 순항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자체 생산 어린 해삼·박대 방류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어업인 소득증대 기대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는 도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어린 해삼과 박대를 20일과 21일 각각 군산시와 부안군 연안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해삼은 지난 6월에 해삼 어미를 확보 후 산란 및 수정을 시켜 수정란을 얻은 뒤 사육관리를 통해 11월까지 1g 이상의 해삼들로 성장시켜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종자이다.

해삼은 몸통과 내장 모두 가식부위로 훌륭한 역할을 하며 갈슘, 철분, 콘드로이틴 성분을 가지고 있어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생물로 '바다의 인삼'이라고 불린다. 또한 바다 저질의 유기물을 섭취해 바다정화에도 도움을 주어 '바다의 청소부'라고도 불린다. 박대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군산

을 비롯한 전북 연안에서 참새대와 함께 저서성 어류의 우점종으로 많은 양이 출현하였지만 해마다 그 수가 감소하고 있어, 2016년부터 자연산 어미관리 및 종자생산 기술을 확보해 사육관리 중이며 종자생산에 사용한다.

박대는 가을 산란종으로 8월부터 성숙유도되며 9월부터 종자생산을 추진했다. 약 3개월 동안 사육관리를 하여 생산하였고 전장 4cm 이상의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종자이다.

또한, 연구소에서는 박대 치어를 어미로 성장시켜 성장된 어미로부터 수정란을 얻어 종자생산을 추진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방류한 종자는 2년 뒤 상업적 가치가 있는 개체로 성장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 전국 귀농·귀촌 활성화 위한 소통·화합의 장 열려

김관영 도지사 "농생명수도 육성 위한 최우선 정책 추진·활력 넘치는 농촌 만들기 등 최선 다할 것"



김관영 도지사는 20일 원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에 열린 귀농·귀촌 소통·화합 행사에 참석해 전북도를 농생명수도 육성을 위해 최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살고 싶은 농촌,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하며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가 귀농·귀촌인 소통·화합 행사에 참석해 전라북도 귀농·귀촌은 꾸준히 진화할 것이며, 새로운 전북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환영사를 열었다.

전라북도 귀농·귀촌연합회 주관으로 20일 '귀농·귀촌 소통·화합' 행사가 개최되어 250여명의 전국 귀농귀촌연합회 및 협회 관계자들이 함께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는 농생명수도 육성을 위해 최우선 정책을 추진,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과 도농 교류 활성화로 살고 싶은 농촌,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 이 자리는 성공적인 우수사례를 귀농·귀촌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보다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정책개발을 정착시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거라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 "문화누리카드 올해 안에 사용하세요"

전북도, 사용 독려·홍보 총력

전북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연간 11만원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12월 31일자로 종료되므로 연말까지 적극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시군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소외계층에게 문화·관광·체육분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대상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이고 1인당 연간 11만원이 적립된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의 2023년도 전라북도 사업예산은 161억, 발급대상은 146,119명으로, 11월 15일 기준 13만9,371명이

발급받아 카드발급률 95%(153억), 카드이용률은 73%(117억)의 사용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0월 24일 장수군을 시작으로 완주, 순창, 김제, 임실, 무주를 찾아 담당업무 수행하는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카드 발급률과 이용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설명회를 추진했다.

지난해 전북도 문화누리카드 카드발급률과 이용률이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하며 전북도의 운영 사례는 타시도 문화누리카드사업 운영에 벤치마크 사례가 되고 있다. 타시도에 비해 전북도의 사업성과가 탁월했던 이유는 시·군·읍·면·동 일선 공무원들이 노인 및 장애인 등 카드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계층에게 사용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적극적인 홍보한 결과이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 국가행정전산망 장애발생 신속 대응

민원서류 발급업무 차질... 정상 복구 안전 기해

전북도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민원행정서비스 오류 사태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 17일 오전 8시 30분부터 행안부 네트워크 장비 오류로 인한 새물행정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 접속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해 등·초보, 인감

등 각종 민원 처리가 마비돼 불편을 겪었다.

이를 대응하고자 담당부처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대책본부'가 구성돼 긴급대책과 복구 대책 마련하고자 힘을 모았다.

이에 전북도는 우선 자체적인 대응으로 도 행정포탈시스템 접속을 가능

하게 해 도 행정업무는 전산망 오류 이후 1시간여 만에 정상 복구해 긴급한 도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또한 도는 지속적인 행정업무시스템 점검과 장애복구 테스트를 실시했고, 18일부터 3일간 5개반 42명으로 구성된 비상근무조를 운영해 정상 복구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

이에 주말간 두차례 장애복구 테스

트를 통해 민원시스템 정상 작동을 확인하고 민원시스템을 재개했으며, 완전한 정상복구로 확인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나윤화 전북도 정보화정책과장은 "이번 전산망 장애발생으로 인해 불편과 혼란을 겪었을 도민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원서비스시스템이 복구됐지만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련 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안심주차번호 서비스 개시

이제부터 차 안에 비치하는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정보 노출 없는 대표번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주정차시 비상 연락용으로 차량에 비치한 연락처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라북도 안심주차번호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공모에서 본 서비스가 선정돼 확보한 예산으로 사업 추진을 완료, 범죄에 이용될 우려로 차량에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기 꺼려했던 많은 운전자들의 불편과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 안심주차번호 서비스는 대표전화(1577-5350) 또는 QR코드를 이용하여 차량 운전자와 통화를 원하는 호출자가 연락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 편의 및 홍보를 위해 피브이시(PVC) 카드 형식의 '안심주차번호카드'(이미지) 5,000매를 제작했고, 여성협력단체와 사회적 약자 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본 서비스를 위해 개발한 전용 홈페이지(safeparking.jonbuk.go.kr)에서 이용을 원하는 도민 누구나 회원가입 후 직접 안심주차번호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